

나주시, '생수 나눔 냉장고' 9월 28일까지 연장 운영

추석 연휴 온열질환 예방·폭염 대응 강화



금성산물레길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명절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생수 나눔 냉장고' 시즌3 운영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당초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을 오는 9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생수 나눔 냉장고'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하루 1인 1병씩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정책으로 나주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남평구교, 금성산물레길, 영산강 둔지 체육공원, 대호수변공

원, 빛가람호수공원 등 5개소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운영 연장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늦더위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시는 연장 기간에도 기존 5개소의 생수 나눔 냉장고를 정상 운영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태와 생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까지 운영을 연장한 만큼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화순군청소년수련관, 4분기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추석맞이 담양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주최·주관하고 담양군과 광주청사관리소가 후원한 이번 장터에서는 담양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담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도왔다.

행사에는 이정국 담양군 부군수와 NH농협 담양군지부장, 담양군 농업회의소장 등이 함께해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 힘을 보탰다. 군은 직거래 장터를 통해 추석 농특산물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분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취미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히고 또래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일상에서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 내 혈관 건강신호 숫자로 확인하세요!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영광군보건소에서 혈관 건강관리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달을 맞아 군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인식 향상을 위해 지난 16일 영광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상담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군민 및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무료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개별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이 추진되었고, 특히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건강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광군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매주 월요일, 내 혈관 체크데이」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이 가능하며 군민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수치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자신의 혈압과 혈당 등 혈관 건강수치를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레드서클 캠페인과 '내 혈관 체크데이'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기

장성군,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 개최

21일까지 38개 팀 300여 명 참가...조정의 미래 여는 화합의 축제

장성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 체육회가 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와 대학부 및 일반부에 전국 38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함께한다.

장성에서는 장성중학교가 남중부 더블스컬과 싱글스컬, 장성여중이 여중부 더블스컬에 각각 참가할 예정이다.

여대 및 일반부에서는 장성군청 조정팀이 싱글스컬, 더블스컬, 경량급 싱글스컬에 출전한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홍보와 현장 지원,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은 '조정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에도 아시안컵 조정선수권대회 경량 더블스컬 은메달, 케이워터 사장배 은·동메달



장성군 조정팀이 장성호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획득 등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비결은 체계적인 지원, 훈련과 더불어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전국체육대회 이래 이번까지 열여덟 번의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르게 된 장성호 조정경기장은 명산에 둘러싸여 바람이 적고, 물이 맑아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7월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단이 전지훈련을 다녀가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조정은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기술, 끝없는 도전정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스포츠"라며 "장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조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

무안군